

#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前號에서 계속〉

## I. 발명인의 길

### 1. 현대는 발명의 시대이다

현대에는 발명의 시대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발명의 혜택을 받지않은 분야는 거의 없으며, 또한 발명의 힘을 빌리지 않고 움직이는 분야도 거의 없다.

발명은 우리의 생활과 사회와 세계에 깊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며,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의 생활주변을 살펴봐도 전등·전화·냉장고·텔레비전·오디오·비디오·세탁기·버스·전차·비행기·컴퓨터·로봇등의 대발명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수많은 발명으로 가득하다.

우리의 이러한 생활은 대자연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발명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듯한 생각이 들게한다. 한장의 종이나 한 개의 활자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보면 앞서 가신 발명인들이 이러한 공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역사에 빛을 남긴 유용한 발명만을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다. 특수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누구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을 먼저 했을 뿐인 보통 사람들이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발명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발명인이 되자.

이 세상의 모든 명예도 지위도 돈도 행복도

모두가 인간의 아이디어, 즉 발명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사람들에게 이처럼 큰 행운을 안겨주는 아이디어는 매일 매시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 주위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 2. 발명인이 되려면 자신부터 갖자

발명인이 되려면 먼저 '나도 발명을 할 수 있다'는 자신부터 갖자.

미국인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나도 발명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발명처럼 보람있고 유익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이거 큰일인데 어떻게 하지?' 또 '여기가 마음에 걸리는데 고칠 수 없을까?' 등 보고 듣는것 모두가 생각처럼 안되는 것 투성이다. 그런데 아무리 넉넉한 생활을 누리는 사람도 더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에는 끝이 없다.

일상생활에서, 집안에서, 집밖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는 '저렇게 고쳤으면 어떨까?'하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면 이런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는 이미 발명인인 것이다.

결국 발명이란 어떤 불평·불만·곤란같은 것에 부딪혔을 때 속상하고 화내고 체념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하고 생각하는 '도전하는 습관'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다.

미국인 필립의 +자 나사못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필립은 1자 나사못에 또 하나의 홈(-)을

“ 누구나 발명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발명인이 되자.  
 이 세상의 모든 명예도 지위도 돈도 행복도  
 모두가 인간의 아이디어, 즉 발명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사람들에게 이 처럼 큰 행운을 안겨주는 아이디어는 매일 매시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 주위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

더판 +자 나사못을 발명하여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다.

우리는 필립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한마디로 발명의 시작은 ‘생각하기’에 있다. 우리들 주변의 가까운 곳부터,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할까하는 습관을 가질 것이며, 이렇게 한가지 두가지씩 차근차근 쌓아올려 가는데 있다.

**3. 발명은 관찰에서 태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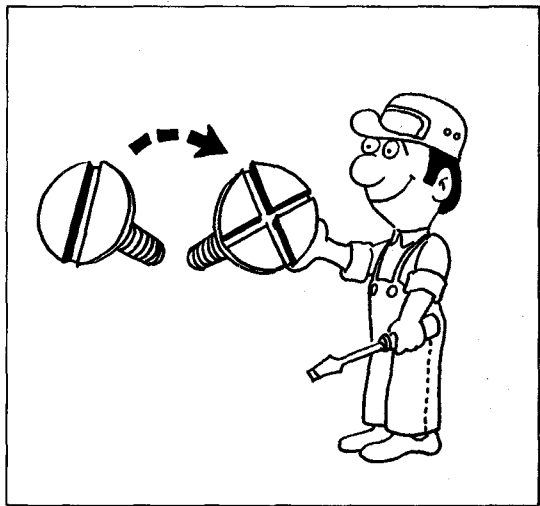
우리들의 주변에는 여러가지 도구가 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한다. 세수대야·거울·비누갑·수건·칫솔·치약등이 있고, 식탁에는 밥그릇·국그릇·찬그릇·숟갈·젓갈·조미료통·주전자·이쑤시개통등 수없이 많다.

이것들은 우리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도구다. 처음에는 없었던 것이 자꾸자꾸 관찰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노벨상을 만든 노벨의 다이내마이트 발명도 관찰에서 비롯되었다.

노벨은 니트로크리셀린이란 액체의 폭발을 파는 상인이었다. 그리니까 학자였거나 기술자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 니트로크리셀린은 기차가 덜컹덜컹 흔들리기만 해도 폭발하는 위험한 것으로, 수송은 목숨을 걸고 했다. 그래서 노벨은 생각했다. ‘쉽게 폭발하지 않는 것을 만들 수 있을까?’를.

그러던 어느날 니트로크리셀린이 든 통을 기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어디엔가 구멍이 뚫렸는지 속의 액이 툭툭 떨어져서 모래에



스며들고 있었다. 좀더 자세히 관찰해 보고 있으려니까 인절미 처럼 굳어지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노벨은 ‘이것이 혹시 폭발하지 않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조그만 덩어리를 망치로 두들겨 보았다. 안전했다. 노벨은 떨듯이 기뻐다.

〈모래에 니트로크리셀린을 흡수시키면 폭발하기 어려운 것이 된다.〉

이것이 노벨의 대발명인 다이내마이트 발명의 시작이다. 그 후에 연구를 거듭하여 드디어 규조토라는 흡수성이 강한 흙에 흡수시켜 그것을 팔아서 당대 세계최대의 부자가 되어 노벨상까지 만들게 되었다.

거듭 강조해 두건데 세계의 역사를 바꿔 놓은 대발명도 반 이상이 우리주변의 세심한 관찰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하고, 항상 관찰하는 습성을 길러야겠다.〈계속〉〈王然中 記〉